

웃둥 보살 빛둥 거사 <15>

구성 : 김흥민



동전을 돌로 나눈 형제 (백유경(百喻經))



옛날 마라국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병이 매우 위중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 아들에게 분부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재산을 잘 나누어 가져라." 아버지가 죽은 뒤 두 몫으로 재산을 나눌 때, 형이 아우에게 말했다.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때 어떤 어리석은 노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물건 나누는 법을 가르쳐 공평하게 가지게 하리라. 지금 있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부수니까?" "웃은 반을 찢어 두 몫으로 만들고, 밥상이나 병도 부수 두 몫으로 만들고, 돈도 부수 두 몫으로 만들어라." 이리하여 모든 재산을 두 몫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 그것은 마치 저 외도들이 분별해 닦는 것과 같다. 모든 외도들은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부수 두 조각을 내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최초의 불상이 만들어지다 최초조상(最初造像)

이 삽화는 석씨원류에 등장한다. 부처님이 어머니 마야부인에게 설법하기 위해 천궁에 머물렀을 때 우다연왕이 부처님을 뵈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불상조상을 발원한 우다연왕이 불상을 조상한 장면과, 부처님이 천궁에서 설법을 마치고 중생 교화를 위해 보배 계단을 통해 내려오며 불상을 조상한 우다연왕을 칭찬하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다.

본문에는 "조상경"에 이르길, 부처님이 천궁에 계시면서 석달 안거 동안 어머니를 위해 설법했다. 이때 우다연왕은 목마르게 하늘을 우리리며 부처님을 생각하다 불상을 조상하기로 발원했다. 비수갈마천은 공인의 기술이 필적할 만한 상태가 없는 천신인데, 이때 몸을 변화해 장인이 됐다. 그리고는 부처님 탄신일을 기해 조상했다. 부처님은 삼도 중생 교화를 위해 보배 계단을 따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때 모든 천신들이 보필해 따랐고, 그 위력이 매우 성대했다. 그리고 광명이 났으니, 마치 보름달이 공중에 있는데 못 별들이 함께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범천왕이 흰 일산을 손에 잡고 부처님 오른쪽에 있었다. 제석천왕은 흰 불자를 지니고 왼편에서 부처님을 모셨고, 모든 천신들이 허공을 타고 내려왔다. 이때 허공에서는 음악과 묘한 향의 꽃비가 내렸고, 사대천왕은 미묘한 물건을 바쳐 부처님께 공양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우다연왕에게 말했다. "그대는 나의 법 가운데 최초 본보기가 된 사람이다. 다시는 그대와 비등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큰 믿음과 이익을 얻게 했고, 이미 획득한 복덕도 광대한 선근이니라." 제석천왕이 왕에게 고했다. '부처님께서 천상에 계시실 때 왕이 불상을 조상하는 공덕을 찬탄했다. 마땅히 스스로 기뻐하고 반가워야 한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했다. '만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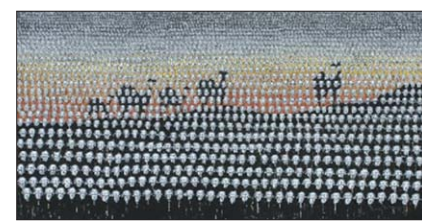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최초조상(最初造像)판. 불입사면 1673년 간행. 판액(半葉) 27.2 x 18.0cm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비단을 짜서 장식하거나 금·은·동·철·연·주석을 녹여 주조하거나 향나무, 옥석에 조각하거나 비단을 짜서 수를 놓아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거나 내지는 극히 작은 손바닥 하나 크기의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르러까지도 온갖 큰 복의 과보를 얻게 될 것이다.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번들리 작은 나라 땅에 하열한 종족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더럽고 사연을 지닌 빈궁한 집에도 태어나지 않는다. 인연세계 가운데 태어나 원만한이 못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모든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을 것이며,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고통 받는 과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온갖 죄가 소멸되어 갖가지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 불상이 조상되는 원인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정성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학스님(명주사교편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願心



세상에 당신이 소유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뿐 네 마음을 비우면 이미 세상은 내 것으로 존재한다 비워라 네 마음을 비우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신비롭다 나는 나 그것만이 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이미 나인 것이다 비워라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온전하다.



부산 대구

카이로프락틱 교육연수원 개원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전생 · 빙의 · 자기최면 · 치료최면

카이로프락터 양성

-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 대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맞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 기간**
 - 2급과정 (1개월)
 -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시간 집약완성
- 장소**
 -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태성빌딩 6층
 -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 입학일시**
 - 2008년 10월 1일 ~ 10월 5일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최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나를 찾는다

- 개강일**
 - 2008년 10월 1~ 10.5
- 교육기간**
 -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수성과정
- 교육대상**
 -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 교육내용**
 - 자기최면 / 타인최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육임 우울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 스트레스 / 금연 빙의 / 전생 / 금주
- 교양대학**
 - 사주명리 / 침술 / 성명학 / 풍수지리 / 자미두수 육임 / 명리로 영가 찾는 법 / 구궁법
- 특기사항**
 - 1. 상상할 수 없는 최초의 교육경비
 -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 3.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수 있도록 책임 평생교육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교육연수원**

부산연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88-4 태성빌딩 6층(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본원 교학과 Tel : 051-746-4026

대구연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53-6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본원 교학과 Tel : 053-632-0078